

졸업생(본인) 소개
2026년 2월 졸업하고, 여의도성모병원 입사 대기 중인 김○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여의도성모병원을 오고 싶거나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하단의 글은 어떤 병원을 준비하든 공통적인 내용이 많기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원 10개 이상 지원했습니다) 동기 부여 얻고 각자 원하는 병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소개 및 업무 소개
여의도 성모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CMC)에 소속된 종합병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종합의료기관입니다.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과 생명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환자 중심의 전인간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점) 부서 원티드 반영 거의 다 해주려 하십니다. 부서 to가 나지 않을 경우, 타부서에 먼저 입사 후 to 나면 바로 로테이션 해줍니다. 사학연금이 되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서 배치 전 전체 교육을 5일 간 진행하며, 부서 배치 후 병동, OR등은 8주간 교육하며, ICU는 10주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병원 홈페이지나 간준모 페이지 들어가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과정
1. 자소서 중앙대병원(질문 9개), 아산병원(자유 양식) 자소서 양식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잘 써두고, 나머지 병원은 첫 글을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재단에 병원이 여러 개인 곳은 자소서 양식이 똑같았기에 복붙 했고, 합격에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처음에 느낌이 잘 오지 않아, 초안을 쓰고 AI의 '도움'을 받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AI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만의 단어로 바꿨습니다. 원티드 병원이라고 새롭게 글을 바꾸지 않고 같은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2. 면접 면접은 혼자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말 할 때 가지고 있던 습관을 알아보고, 면접에 도움 되지 않는 모습은 거울 보고 고쳤습니다. 떨려서 말 버벅거리고, 천천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인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말만 잘하면 됩니다. 해야 할 말이 기억나지 않을 때 '공감','소통','배려'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답변했습니다. 직무 면접은 초록이, 인성 면접은 기출과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자기 소개는 자다가 물어봐도 바로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외웠습니다. 3. 토익 3학년 여름 방학에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상반기 채용공고 나기 직전에 원하는 성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의 실력을 알기 위해 공부하지 않고 첫 시험을 봤습니다. 이후 1주일 동안 하루 2시간씩 공부하여 점수를 올리고, 부족한 부분을 1주일 동안 준비하여 원하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하는 것이 최적이고, 늦어도 4학년 시작하기 전 2월까지 최종 성적을 만들어 두는 것이 취준할 때 신경 쓸 부분이 하나라도 줄어 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베이스가 없다면 더 일찍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1. 성적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겠지만, 성적 챙겨야 합니다. 저희는 지방 전문대 학생이니깐요.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은 성적이 우선입니다. 일단 서류를 붙여야 나를 더 표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자신이 몇 학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놀고 싶다면,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4학년에 노세요. 3학년까지 유지한 성적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1,2 학년에 놀면 웬만하면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복습'하세요. 매일 2시간씩만 공부하면서 공부 습관만 만들어 놓으면 이후 공부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2. 토익

목표를 세우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어도 한 달을 잡고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원하는 점수대가 어디인지에 따라 시간은 달리질 수 있습니다.

3. 자소서

자소서는 한 번에 완벽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번 글을 쓰고 고치다 보면 자신만의 글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학기 중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면접

저는 합격 시그널을 받았다고 생각한 병원에서 떨어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한 병원을 붙였습니다. 흔히 '면까몰'이란 말이 있듯이 열심히 준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최종합격을 받지 못했을 때 '내 능력이 낮아서가 아니고 여기는 내 병원이 아니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마인드 같습니다.

면접마다 분위기는 천차만별입니다. 면접관의 표정보다 자신이 준비한 만큼 후회 없이 말하고 오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 AI 면접

저는 AI면접 본 모든 병원에서 떨어졌습니다. 꿀팁, 합격방법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 날의 AI에게 자신을 맡기세요..

5. 내가 나이가 많다면?

저도 20대 후반에 취업했습니다. 그것도 나이 많이 보기로 유명한 성모병원에 합격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굴복하기 보다 그 상황을 뒤집을 '나만의 스킬'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중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씩 다가가면 꼭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 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